

12월에 집어들면서 농성장에 있던 이주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면서 차제 해산을 하는 농성장이 늘고 있다.

그렇게 모이게 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 그것마저 희망 없음을 하나둘씩 체념을 배워가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두렵다.

한국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었다. 한국의 자본주의 문화와 생활에 적응되면서 정작 고국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이고 화려한 삶이 결코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리라.

해마다 귀농하는 직장인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그런 말은 자기도피 이상은 아니리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미안하고 두려운데, 이제는 결코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

이 세상이 정과 관계로서의 아니라 힘과 힘의 대결을 통해, 약자가 강자에 굴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지극한 체념의 역사를 전해준다는 것이 너무도 두렵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 해도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고도 각박하다.



다만 바람 뿐이다.

지금까지의 지난한 시간이 있었고, 또 새로운 시간들은 다가올 것이라는 것. 그 지난함에 결코 굶하지 않기를....

이주노동자의 지킴이 최의팔 목사님과 최세연 교무님

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는 시청 별관 옆 심공회성당. 마당을 어슬렁거리다보면 마치 터주대감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바로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의 최의팔 목사와 원불교의 최세연 교무님.

이제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웬만큼 사회분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익히 얼굴과 이름은 알 수 있을 정도로 눈과 귀에 익숙한 분들이다.

건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의 따뜻함을 빌어, 토요일공공연의 준비로 분주한 농성장 한편에서 잠시잠깐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이제 농성이 15일째로 접어들었다. 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농성이 유지될 것 같은가?

최의팔 처음 농성을 하게 된 것도 이주노동자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이곳의 유지 역시 그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처음 농성을 할 때 제조업체 근무자들은 참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정부에서 하는 일과



그런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단속까지 각오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여기 농성장에 해산의 기미는 없어 보인다. 처음 일주일에 일부가 이탈하기도 했지만, 다시 또 일부가 들어오는 등 계속해서 농성단은 늘거나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일단은 국제이주노동자의 날인 12월 18일까지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그리고 그 안에 이주노동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다면 농성을 해산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고용허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의팔 일단 이번 법의 제정으로 2/3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이 되었다. 이걸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장기체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 온 사람들을 위해 12만 명을 강제 출국시킬 것은 커다란 실수를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것도 벌써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도 한 나이지리아 이주노동자가 어머니의 병환소식에 편의를 요청했다가 해고당했다. 내년 8월부터 시행될 1년 단위의 3년 계약이라는 조항도 너무 기업가들의 편에 맞는 것이라 생각된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집회와 농성장을 지키는 최의팔 목사님과 최세연 교무님.



- 어떻게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되었나?

최의팔 예전부터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명의 이주노동자가 내 교회로 피신을 온 것이다. 그때 사회에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과 함께 한 것이다.

나는 원래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남는 게 목표였다. 언제든지 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는다면 다시 그 길로 갈 것이다.

최세연 원래 스리랑카로 나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내에서 고통받고 있는 스리랑카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먼저 가까이 있는 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저렇게 일자리들이 없는데, 이렇게 일하고 싶어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왜 내쫓는단 말인가.

때로는 파스한 어머니와 같이, 때로는 기강을 엄하게 세우는 아버지와 같이, 최세연 교무님과 최의팔 목사님은 항상 대열의 맨 선두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고 있다.

그분들이 자신의 길을 맘 편히 갈 수 있도록 이 사회에 인권이 바로 서는 날이 한시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제4장

이주의 두모습



1. 한국에서 연수생으로 살아남기



지난여름 수원 심터로 밀어지지 않는 제보가 들어왔다. 용인의 한 연수업체에서 스리랑카 연수생 4명이 일주일간 닭 한 마리와 양배추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제보였다. 일단 믿어지지 않지만, 국내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상황을 조사해보기 위해 긴급히 용인공장을 방문해보았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제보는 사실이었다.

여기 그들에 대한 짤막한 조사보고서를 정리해본다.



4명이 생활하는 숙소의 모습과 신발 등이 지급되지 않아 발이 짓물러 있는 한 노동자의 모습



- 식사는 어떻게 제공되나?

아침은 없고, 우유 1개씩(토요일은 야간 근무자만 지급), 점심과 저녁은 콩과 쌀을 섞어서 끓인 밥을 해 먹는다. 반찬은 특별한 게 없고, 간장을 타서 먹거나 스리랑카에서 가져온 소스를 고추장처럼 넣어서 비벼 먹기도 한다. 5월 15일에 지급된 우유는 유효기간이 5월 12일까지였다.

- 식대는 지급 받는가?

1달에 3만원씩 4명이 12만원 지급 받는다. (실제 수령액은 112,000원으로 나머지 8천 원은 아침에 지급되는 우유 값으로 공제되는 듯 함.)

- 휴일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처음에는 일요일도 근무한 적이 있으나 임금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다. 노동절도 근무했었고, 석가탄신일은 연수생들이 회사에 요청해서 하루 쉬었다.



- 가스렌지로 인해 식사를 하지 못한 일수가 대략 어느 정도인가?

작업 공정 중 작업물을 뜨거운 불에 남기는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이 이루어지는 날이면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 위에서 하루 종일 물을 끓인다. 이런 날이면 가스렌지를 사용할 수 없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적어도 1주일에 1번은 되고,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1주일에 2, 3회 정도 그렇게 한다.

- 외출은 자유로웠는가?

친구들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만약 공장을 벗어나면 경찰이 감옥에 가둔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나가지 말라고 했다.

- 현장 바닥에 물과 기름이 흥건한 이유는?

기계고장으로 기름이 새어나온 것이다. 피스톤 사이에는 오일 필터가 노후해서 그 틈새로 새는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기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를 고치면 다른 하나가 문제를 일으킨다.

-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은 얼마나 받았나?



화장실의 문은 고장 나 있었다. 전기료를 아끼다며 형광등은 화장실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렇게 어두워진 공장에서, 야간작업으로 혼자 지서 500kg나 되는 기계부속품을 옮겨야 한다. 그리고 식수가 지급되지 않아 공장에서 사용되는 물로 연명하고 있었다.

작업을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난 후에 약 30분 정도 연금이 있었다. 사업주가 영어로 얘기했는데, 안전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납품에 관한 것과 물량이 나면 안 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 작업장에서 위험한 것은?

사촌기에서 용도에 따라 볼트를 교체하는데 무거운 것은 1개에 약 500kg 정도 나간다. 그리고 전선이 노출되어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기계의 노후화와 불량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보겠다고만 말한다. 안전으로 위해 자동으로 기계를 정지시키는 뚜껑이 고장 나 손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은 과연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열악한 것이었다. 화장실의 문은 떨어져 있었고, 속소는 파리의 천국이였다. 방충망이나 파리, 모기약이 없어 스카치 테이프를 천장에 붙여놓았다. 또한 전기료가 많이 나간다고 형광등을 빼 화장실에 보관하고 있어 야간작업 시 극도의 피로와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도 가장 기본적인 방진마스크마저 지급하지 않아 본국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여 전달받았다.

이들에게 있어 연수는 교육이나 근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고장난 기계와 새어나온 기름으로 범벅이 된 바닥 그리고 어둔 실내 조명으로 그곳에서의 작업은 항상 위험과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되고 있었다.



2. 우뿔과 디리니의 결혼식



햇살이 따스해진 봄날의 휴일, 간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집을 나섰다.
오늘은 스리랑가인 우뿔과 디리니의 결혼식이 있는 날.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애를 했지만, 우뿔과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오는 바람에 결혼이 많이 늦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디리니가 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덕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비록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연수생 신분 때문에 주말에만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랜 염원이 실현된 두 사람은 마냥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그 즐거워 보이는 모습보다 좋아 보이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이다. 수원 시티의 관계자들뿐 아니라 각자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보내왔고, 덕분에 한국 사람이 하는 모습 그대로의 결혼식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결혼대행업체는 예복과 메이크업을, 우리같이 사진을 하는 사람들은 웨딩사진을, 요리학원강사는 잔치상과 뷔페를, 그리고



이도 지도 힘든 사람은 자원봉사를 맡아 환관 상대한 잔치를 벌여낸 것이다.
 스리랑카 친구들도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된 그들의 모습에 함께 기뻐했고,
 종선 불기에서부터 사회 그리고 죽가까지 다양한 형태로 축하에 동참하였다.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결혼식의 모습에 신랑, 신부는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했으며, 다른 스리랑카 친구들은 호기심과 즐거움을 반쯤 버무린
 미소를 지닌 채 식에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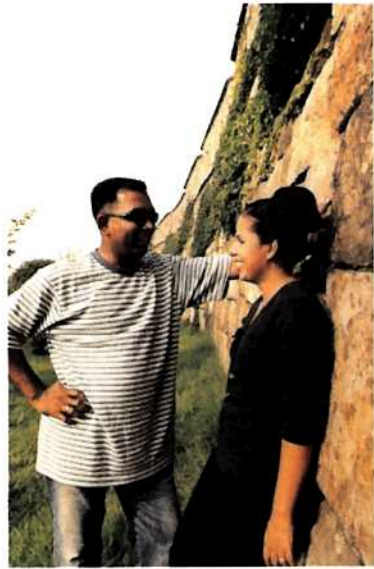
결혼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눔으로써 행복해진다는 것에
 인종과 계급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차별과 편견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우리의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것.

아마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극적인 결혼이 바로 이주노동자와 우리가
 동등하고, 하나의 생활공동체라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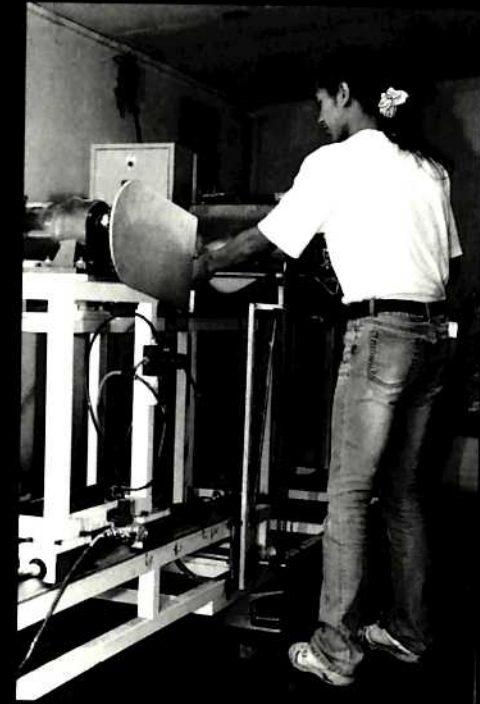


94 이주. 낯설에서 일상으로





제5장 일상



1. 노동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해주는 노동. 가장 기본적인 생물적인 욕구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사회적 존재로서 가치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노동.

하지만 아직도 '노동'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는 되고 있지 못한 듯 하다.



파키스탄 친구들이 근무하던 공장



이주노동자들은 야간에 주로 근무를 한다. 잔업과 철아가 많고, 출로된 그 시간만이 공장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혼자서 넓은 공장을 관리하다 보니 낮 근무보다 더욱 정신이 없다.

2. 여가

일과 놀이는 따로 떨어져있지 않다.

여가는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양식이며, 새로운 노동을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여가는 적극적인 수밖에 없다.

-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간 친선 크리켓 경기

아구와 비슷하지만 또 다르고,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등의 중동과 유럽 쪽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리켓은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이기도 하다.

가을을 맞아 크리켓이 활성화되어 있는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간의 친선 크리켓 경기를 오산의 한 대학에서 개최하였다.

힘든 만큼 단결하고, 떠난 만큼 그리워한다던가.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의 이주노동자는 서로 간의 단결이 너무 높았고, 고국에 대한 자긍심 또한 너무 높았다.

그리고 가장 곤란한 점은 서로 간의 규칙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테니스 공과 검정색 테이프를 감은 공의 선택에서 시작된 두 이주노동자 팀간의 경쟁은 점심 식사도 생략된 채 6시간 동안이나 진행되었다.

가끔 뿌러지는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시 여기서도 문화의 차이는 존재하는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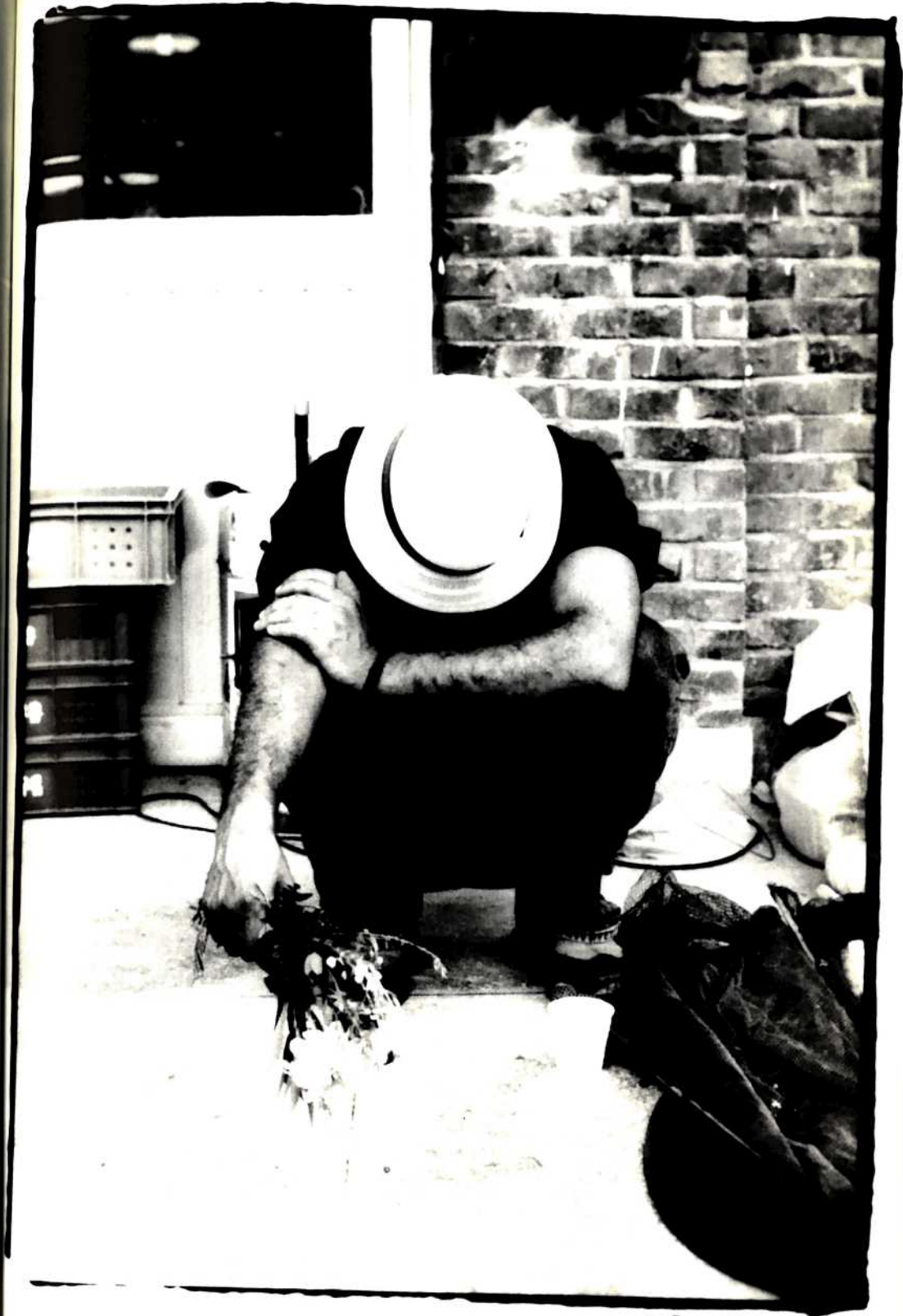
그리고 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 간의 친선의 정을 쌓고, 내부 단결력을 키우며 그렇게 한국사회에서의 생존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102 이주, 낯설에서 일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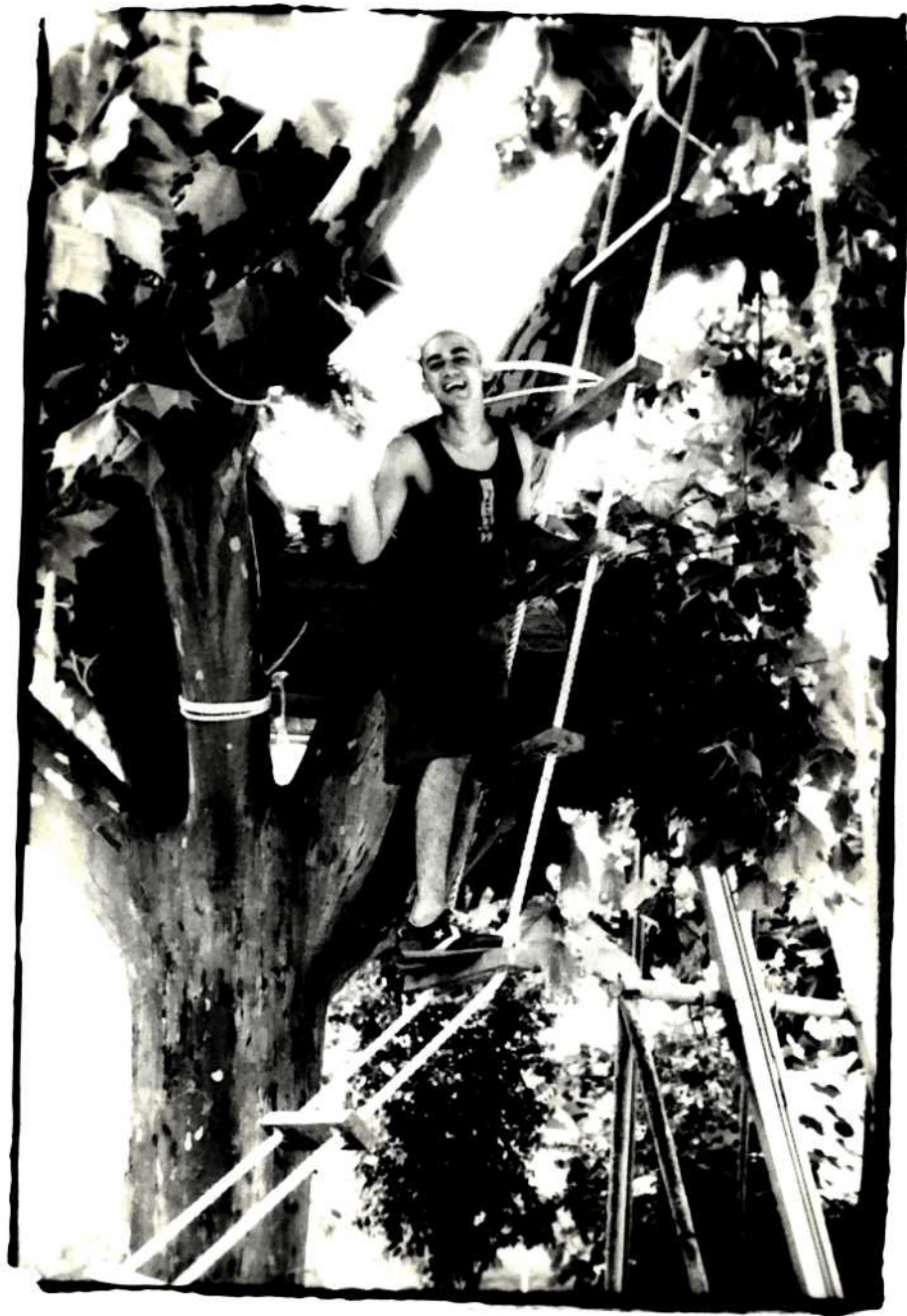






간디학교를 방문한 아시아의 친구들.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항상 딱딱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만나던 그들 이주노동자들의 표정이 참으로 다채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놀 때 무척 적극적이 되는 이주노동자들. 아마도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푸는 것이라.





남는 것은 사진뿐이라던가. 간만에 나온 아유화에 가장 분주한 것은 조그만 카메라였다.





3 결혼

각 나라의 결혼방식은 그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과 공동체의 축복을 받는 방식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원과 경제적인 토대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양식과도 결합해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을 본다는 것은 그 나라와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할만하다.

하지만 이제는 서구적인 양식이 일반화되면서, 예식장과 웨딩드레스 그리고 부케 등 상당히 전형화 된 형태를 띠게 된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찌되었든, 그 방식과 형식이 어떠하든 그 안에 흐르는 감정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민족과 종교의 공통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은 익숙지 않은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이주노동자들의 결혼식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국에서의, 그것도 부모도 없이 치뤄지는 결혼은 항상 조용한 울음으로 마무리되어진다. 즐거움과 서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부친에서 열린 네팔 이주노동자의 전통혼례.





126 이주, 낯설에서 일상으로



4. 종교



부처님 오신 날 함께했던 스리랑카 친구들. 이미 보살님들라는 친한 사이가 되어있었고, 그날도 스스로 준비한 각종 연등과 함께 거리행진에 참여하였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의 하나가, 특별히 종교적인 대립을 겪지 않았던(아마도 근대 개항기(?)에 서구 기독교 또는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국가적 이해와의 충돌이 가장 대표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이다.

상당히 폭력적이고, 여성을 차별하며 이해하지 못할 문화를 가지고 있는 종교로서 이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이런 인식이 우리가 생성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도 근대와 현대의 과정에서 서구와 이슬람 세계의 충돌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서구적인 편견이 한 옴의 여과 없이, 아니 오히려 강화되어 우리 사회에 투과되어 있는 것이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일 듯 하다.

하나를 이슬람이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위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테러가 이런 인식을 강화하고 있고, 이라크에서 이루어진 이번 사건으로 그런 인식은 더욱 강화될 것 같다.

하지만 이슬람은 결코 폭력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원리를 보고, 지난 역사의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살펴봐도 폭력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장 피해야 할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는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편견을 그대로 수용한 종속적인 사고와 부분을 전체화시키는 언론의 무책임함이 초래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다음으로는 그 사회의 문화가 종교와 결합된 현상을 종교의 기본적인 교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한민족이라는, 오천년 단일민족이라는 모한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배타적으로 흐르거나, 지난 역사에 대한 부정만 가져오지 않는다면.

하지만 이런 자부심과 그것에 대한 훼손의 역사가 의외로 우리 사고를 보수화 시켰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듯 하다. 즉 우리와 다른 문화와 양식에 대해 좀처럼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게 종교적인 차이로 확대되면서 이해 못할 종교라는 식으로 배타시 하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종교라는 화두는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를 하고 이해하려 노력을 해보는 것이리라.





이슬람은 아직도 우리에게 생소한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만큼 행사를 준비하고, 치뤄내는 이슬람 이주노동자의 마음은 남다른 수밖에 없으리라.



6. 공동체

파키스탄 이슬람 종교지도자의 방문. 안산에서 있었던 이 강연회는, 국내에서 흔치않은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이 날을 기다리던 파키스탄 인을 무척 고무시켜 주었다. 종교가 가지는 힘일 것이고, 존재의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매월 첫째주에 모임을 하는 스리랑카 공동체의 모습. 항상 진지했던 이 모임은, 고용허가제 이후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조금 정체되어 있다.



제7장

더불어 사는 사람들



수원 컴퓨터에서 일요일마다 열리는 한국어교실.



수원 컴퓨터의 실날 행사



성동센터의 이춘섭 관장님

1.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 시작의 규모 면에서도 그렇지만, 다양한 사업 방식 또한 기존의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새로운 실험인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가 어떻게 발전할 지 이춘섭 관장님을 통해 들어보았다.

1. 이번 고용허가제의 내용과 그 이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든 생각하십니까?

- 연수제와 비교해 볼 때 고용허가제는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을, 징주화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특히 영세사업자)와 이주노동자 모두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할 수 있으며 구태의연한 탁상공론적 행태이다. 딱히 대안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처럼 영주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이주노동자와 더불어 살다는 것을 인식하고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고용허가제가 더 나은 이주 노동 정책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정책이라고 믿고 싶다.

현재의 무분별한 단속은 단기체류 이주 노동자 또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며 잠적하거나 두문불출하고 있고 그들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될 결과를 낳고 있다.



2.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가 만들어진 배경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 성동구에서 조성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였기 때문에 타 센터에 비해 더 나은 물적 기반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기초단체의 최소한의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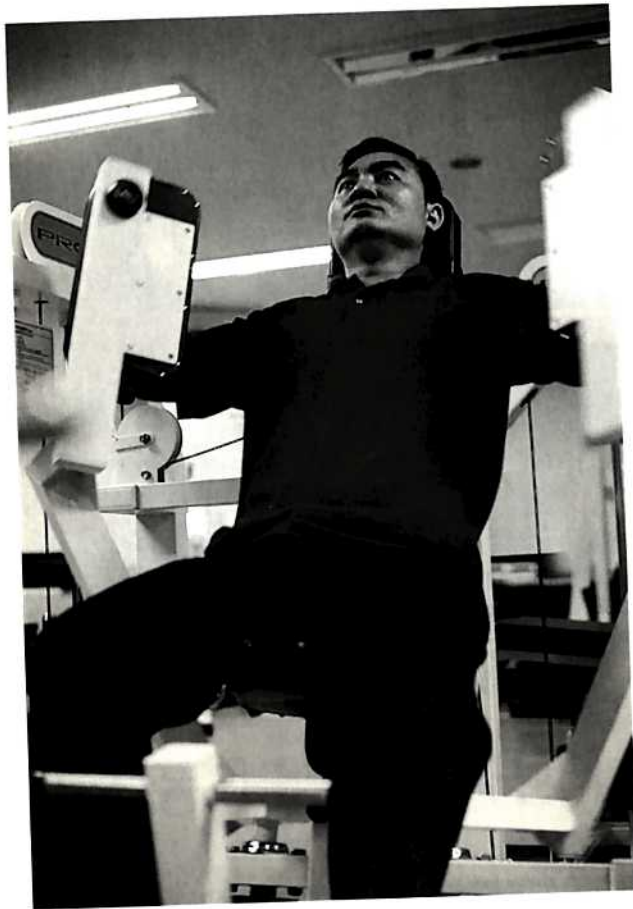
우리지역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해준 것이 이 정도 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우리는 그들을 불러만 왔지 해준 것은 없다.

스위스의 어느 작가가 "부족한 것은 노동력 그러나 들어온 것은 사람이었다." 라고 했었다. 우리는 그들의 노동력만을 보고 있으며 그들도 문화적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정말 불연치한 행동이다.

3. 방과 후 지도 등 몇 가지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한글교실과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주 청소년들(몽골 사람이 주)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이 열리고 있다. 1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이곤 했는데 현재는 고용허가제의 여파로 그 숫자마저 줄고 있다. 그리고 외부단체와 연계하여 영상 다큐멘터리제작과 몽골교실을 열었지만 참여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다른 센터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4.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센터들의 운영방안은 이래야 된다는 게 있다면 ?

지금까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주로 갈등과 대립 구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국인은 情적이며 관계 지향적인 사람들이고 이러한 성향은 외국인에게도 나타난다. 우리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외국인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의 지배를 받는 대형사업장과는 달리 영세사업장은 가족적인 관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원칙이나 교과서는 없지만 이주 노동자를 고압적인 시선 또는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정서는 배우고 줄 수 있는 것은 주는 협력적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친구 같고 가족 같은 작업장 내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HTTP://www.smwc.or.kr/](http://www.smwc.or.kr/)

2. 수원외국인노동자 센터 박희영 운영 위원장님에게 듣는 '이주노동자와의 3년 간에 대한 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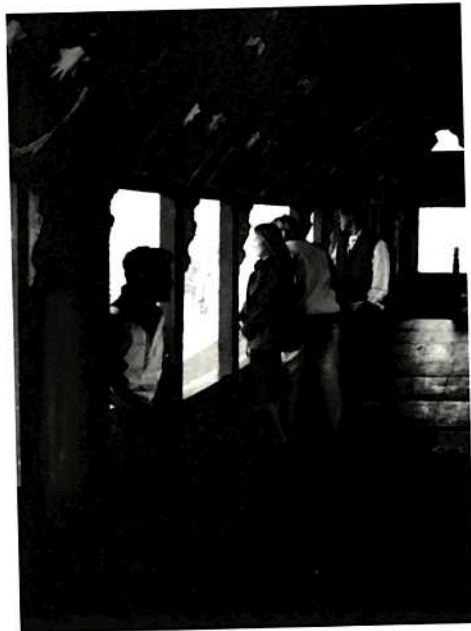


2000년 7월 30일에 개소한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가 3살을 훌쩍 넘긴 2003년 12월, 박희영 운영위원장(고등학교 교사,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을 만나 지난 3년의 소리를 들어 보았다.

-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가 문을 연지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요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행되면서 곳곳에서 항의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등 상당히 어수선한데, 최근의 근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시남주에 농성장을 방문했었는데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센터가 3년을 지내오면서 자리도 잡고 지역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조출한 사랑방이 되어 가는 모습이 흐뭇합니다.

해마다 1~2차례씩은 꼭 있었는데 요즘처럼 정부의 단속이 진행될 양이면 외국인노동자들로 북적이던 수원역도 한산하고, 센터에 대한 발길도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 올 한해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2004년을 기대하는 자리도 마련해야 할 때인데... 글썩요.



수원 센터의 가을 이유회



-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고생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 수원시장이었던 심재덕씨가 가지고 있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현실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제도적인 여건상 지자체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운영주체와 내용은 수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담아내고, 현실적인 문제였던 공간 마련과 최소 범위내의 운영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초반이었는데 어쨌든 수원시와 지역 단체들을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현재의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과 지원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리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와 지자체가 자기역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장과 협력을 통해 국내 외국인노동자 지원활동의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 상당히 의미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지 않았었다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개소이래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재훈 상담실장이 있어서 센터를 만들어 보겠다는 고민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지나간 시간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한두 가지 에피소드를 드신다면

글썩요. 먼저 2000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구)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난적이 있는데 용의자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가 밝혀져서 지역사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 봄에야 사건이 종결되어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손해배상을 지급 받은 적이 있었지요. 2년 넘게 고생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진상조사활동을 하신 분들과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주신 법무법인 다산의 모든 분들에게 뒤늦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인가 스리랑카 남녀 노동자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주례를 봤습니다. 신랑은 한국에 온지 4년이 넘었고, 신부는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산업연수생 신분이었는데요 7년 열애 끝에 만나 민 한국 땅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현장을 목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에 필요한 의류와 음식, 차량 등을 거의 무료로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혹시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가 가야 할 방향이나 앞으로 모색되어야 할 외국인노동자 지원방식과 내용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쉼터를 찾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편안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외국인노동자들이 쉼터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방문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대들이 좀 더 나은 한국생활을 하기 위해 생각하는 동기들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수동적인 자세로 도움을 받는다고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해와 요구들을 쉼터를 매개로 찾아 나서는 힘이 부족하면 쉼터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수만큼 우리 사회는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 스스로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쉼터라는 조그마한 공간이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에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연대의 움직임이 필수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전에 가지고 있던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외국인노동자 혹은 가장 초보적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수원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중 하나로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할 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제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워주는 부품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사라져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부품으로 생각하니 필요하면 데려오고 아니면 ●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 앞으로 나가려면 외국인노동자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무조건 밖에 나가서 세계화를 도입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앞에 선 물질적, 정신적인 세계화의 진정한 재부를 인정하고 어울리는 것에서부터 한국사회의 진정한 세계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해법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전혀 한국적이지 않은 한국적인 것에 집착하다가는 한국사회는 커다란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 것입니다.

벌써 3년 동안 수원외국인노동자 쉼터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다규멘터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록에 인쇄한 국내의 풍토에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런 작업을 해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책과 기간의 전시 등 홍보물 역시 이런 쉼터의 지원이 없었다면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제 쉼터는 이미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전문적인 확산과정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한국사람 사이의 좀 더 속 깊은 소통통로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이런 작업들과 노력들이 바로 우리와 그들이 함께 했던 과정을 하나의 역사로 정리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